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2.5(금) ~ 2025.12.11(목)

제공일시 2025 12 19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 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2.5(금) ~ 2025.12.11(목)

제공일시 2025 12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글로벌 정책

1. EU, 2040년 첫 중간 목표 합의…온실가스 90% 감축·크레딧 확대·ETS2는 2028년으로 연기

-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90% 감축하는 첫 중간 목표를 EU 기후법에 포함하기로 집행위원회·유럽의회·EU 이사회 간 잠정 합의에 도달함

- 이번 합의는 EU의 첫 공식 중간 목표 설정이라는 의미를 가지나,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와 에너지 비용 부담, 무역 보호주의 논쟁으로 회원국 간 협상이 민감하게 전개돼 왔음

- 블룸버그는 최근 정치·경제 환경 변화가 중간 목표 설정을 EU 기후 정책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함

(임팩트온 2025.12.10)

2. EU, 기업 지속가능성 규제완화에 최종 합의…한국 기업들 "한숨 돌려"

-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기업지속가능 실사지침(CSDDD)의 적용 범위와 의무를 축소하는 데 정치적 합의에 도달함

- 이번 합의로 EU가 지난 10여 년간 유지해온 강경한 ESG 규제 기조가 눈에 띄게 완화되며, 역외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규제 부담도 줄어들 전망임

- 환경·인권 단체와 일부 책임투자자, 스페인 등은 이를 유럽의 그린 리더십 후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ESG경제 2025.12.9)

3. "미국산 축소" 반도체 자립 나선 中

- 미국이 엔비디아 H200 인공지능(AI)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중국은 이를 계기로 반도체 자립과 미국 의존 축소를 오히려 가속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H200 수출을 허용하면서도 모든 물량을 안보 심사 대상으로 관리해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함

- 중국 정부는 H200 구매 승인 절차의 의무화와 국산 칩 미사용에 관한 사유 소명, 정부 산하 기관의 구매 제한 검토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파이낸셜뉴스 2025.12.10)

국내 정책

1. 금융위, 중대재해기업 '한도성 대출 축소' 지시

-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마이너스통장 성격의 한도성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감액을 넘어 정지 요건까지 은행 내규에 반영하도록 전 은행권에 지시함

- 금융위는 기업의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에 명확히 반영하고,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 중대재해를 포함해 일괄 적용하도록 규정함

- 다만 이미 실행된 일반 대출은 회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

(SBS Biz 2025.12.9)

2. 폐자원 수입에 할당관세 적용…'도시광산' 전략산업 키운다

- 정부가 내년부터 폐촉매 등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재자원화업계의 원료 수입 부담을 낮추기로 함

- 기획재정부는 재자원화 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신규 지정하고, 폐촉매·폐PCB·블랙매스·폐배터리·티타늄 스크랩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함

- 폐자원에서 금속을 회수하는 '도시광산' 산업이 국가 전략 차원의 정책 지원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한국경제 2025.12.9)

3. 기후부, 내년 태양광 입찰시장에 '수직형' 도입…가격상한 상향 검토

- 정부가 내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수직형 태양광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제도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짐

- 수직형 태양광은 아침·저녁 시간대 발전이 가능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과부하 문제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음

- 정부는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가격상한 현실화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수직형 태양광 등을 포함한 입찰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 중임

(MTN 2025.12.9)

글로벌 기업

1. 구글 클라우드, 에너지기업과 손잡고 GW급 데이터센터 개발

- 구글 클라우드가 미국 최대 전력·에너지 인프라 기업 넥스트에라에너지와 함께 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 캠퍼스와 발전·전력 공급 인프라를 공동 개발함

- 양사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부터 전력 계통 연계, 에너지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을 결합한 '패키지형 전력 공급 모델'을 제시했으며, 현재 3개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개발 중임. 추가 후보지도 공동으로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위치와 세부 계획은 공개되지 않음

(한국경제 2025.12.9)

2. 엑손모빌, 저탄소 투자 3분의 1 축소…"수소·CCS 수요 기대 이하"

- 엑손모빌이 2025~2029년 저탄소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기존 약 30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약 100억달러 축소하겠다고 밝힘. 이에 따라 수소와 탄소포집·저장(CCS) 등 핵심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가 조정될 전망임

- 파이낸셜타임스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전략이 후퇴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전함

(임팩트온 2025.12.10)

3. 미 태양광 143개 기업, 의회에 공동 서한…"트럼프 정책으로 사업 마비"

- 미국 태양광 업계 143개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허가 정책으로 전국 태양광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의회에 공동 서한을 제출함

- 이들은 내무부가 7월 도입한 신규 심사 규정을 신규 태양광 허가를 전면 중단하는 허가 유예 조치로 규정함

- 개발사·시공사·제조사가 대거 참여해 해당 정책이 연방·사유지를 불문하고 태양광에만 적용되는 전례 없는 규제라고 비판함

(임팩트온 2025.12.8)

4. 르노그룹과 포드, 전기차 동맹 체결…승용·상용 EV 공동 개발

- 프랑스 르노그룹과 미국 포드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 양사는 르노 자회사 암페어가 개발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승용 전기차 2종을 공동 개발해 2028년 초 출시할 계획임

- 차량 설계는 포드가 맡고, 생산은 프랑스 북부 르노그룹 생산 시설에서 진행될 예정임

(전기신문 2025.12.9)

국내 기업

1. IEA, 한국에 SMR 실증 국가산단 권고…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밸류체인 재조명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에너지정책 리뷰를 통해 한국에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실증을 위한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권고함

- IEA는 한국이 기존 원전 기술과 제조 역량을 활용해 SMR 제조와 운영을 동시에 보여주는 실증 산업단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원전·플랜트 기업들의 SMR 밸류체인 역할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뉴스워커 2025.12.10)

2. SK케미칼, 中에 폐플라스틱 처리시설 건설…원료 내재화

- SK케미칼이 중국 산시성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커린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인 '리사이클 원료 혁신센터(FIC)'를 건설함

- FIC는 폐플라스틱을 원료화하는 가공 시설로, 완공 시 SK케미칼은 화학적 재활용 소재 생산을 넘어 폐플라스틱 소싱 밸류체인을 확보하게 됨. 화학적 재활용 기업이 폐플라스틱 소싱 설비를 직접 구축한 사례는 SK케미칼이 최초임

(한국경제TV 2025.12.10)

3. LG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잡자"…특수 냉각솔루션 전담조직 신설

- LG전자가 에코솔루션사업본부 산하에 산업·상업용 특수 시설 대상 HVAC 솔루션을 전담하는 '어플라이드사업담당' 조직을 신설함

- 이번 조직 개편은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반도체, 원전, 제약, 배터리 산업 등에서 급증하는 특수 냉난방공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임. LG전자는 해당 조직 책임자로 이광원 담당을 임명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임

(매일경제 2025.12.10)

4. LG엔솔 '2조 빅딜'…벤츠에 배터리 공급

-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와 약 2조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함

-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계약을 포함해 벤츠에 총 약 24조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됨

- 이번 계약으로 양사 협력이 하이엔드 전기차에서 중저가 전기차 모델용 배터리까지 확대될 전망임

(파이낸셜뉴스 2025.12.8)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12.5(금) ~ 2025.12.11(목)

제공일시 2025 12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EU, CBAM 적용범위 대폭 확대...세탁기, 자동차 부품까지

-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적용 범위를 기존 철강·알루미늄 등 중간재에서 세탁기, 가스레인지, 자동차 문, 정원용 공구 등 최종 완제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이번 확대는 EU 역내 기업들이 기후 규제를 준수하며 부담하는 비용과 달리, 수입업체가 완제품 수입을 통해 탄소 국경세를 회피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일부 수입업체는 튀르키예 인근 국가 등에 가공시설을 두고 CBAM 적용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제조해 역수입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해왔음

- EU 집행위원회는 가공을 거친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포함해야 탄소 가격 회피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적용 대상 품목은 사용된 원료의 탄소량과 EU 외 지역에서 생산된 위험도를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임

- CBAM은 EU 배출권거래제(ETS)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현재 EU 산업계는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약 80유로(약 14만원)를 부담하고 있음

- EU는 ETS 도입 이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제도의 효과를 강조함

- 자동차·태양광 등 산업계는 공급망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확대를 이유로 제도 확대에 우려를 나타냄

- 반면 EU 가전 제조업체 단체는 완제품까지 포함하는 CBAM 확대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함

- 중국과 인도 등 주요 무역 파트너국은 CBAM을 보호주의적 무역 조치로 비판해 왔음

- EU 집행위원회는 제도에 대한 반발에도 세금 면제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이번 검토에는 EU 역내 기업의 역외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보조금 제도 검토도 포함됐으나, 재원 마련을 둘러싼 내부 협상이 진행 중임

(임팩트온 2025.12.9)